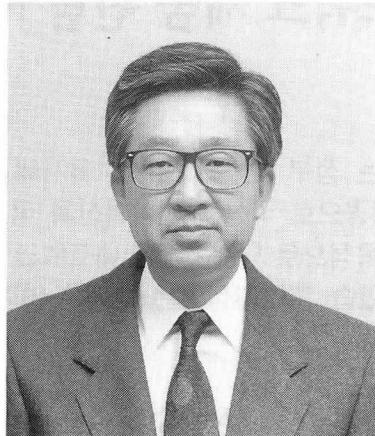


국가 경쟁력 제고의



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기간 산업현장에서 일해오면서 정보통신이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중심이 되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여러분들의 노고 또한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새 정부인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은 기존의 인식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서 온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며, 밖으로는 밀려오는 개방과 세계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일입니다.

구조개혁은 이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외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만이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관건은, 바로 정보화(情報化)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세계는 지금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직원과 산하단체장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 제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 정부의 국정에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치하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더불어 저의 맡은바 소임에 최

필수 요소는 ‘정보화’

이제 정보화는 국가핵심정책인 동시에 새로운 정신혁명입니다.

새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할 100대 과제에 정보화 부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다음 몇 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MF 환경하에서 전반적인 투자조정과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정보화사업도 이러한 경제사회 각분야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고도 정보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제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정보통신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략적 핵심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하여 창의와 기술력을 갖춘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설립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해 생존할 수 있어야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통신과 방송업무의 융합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전파를 효율적이고 질서있게 이용하여 국민생활의 정보화를 통하여 정보지식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산업의 개방과 더불어 국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해 자립 경영의 기반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정사업 운영도 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3만여 종사원이 몸담고 있는 우정사업이 하루속히 자립경영을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체신금융사업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정보통신정책을 투명하고도 개방된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조정 사항이나 국민여론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위해 민간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은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공직자를 향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과거에는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중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느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가는 공직자로서 투명한 행정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정부 출범은 여러분 모두의 십기일전의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통신가족’의 한사람이 된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한 가족처럼 유지해 온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직원간의 화합의 정신을 이어나가 주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IMF체제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분담이, 특히 고위직 여러분들의 더 많은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저도 솔선하여 고통분담에 나서니 만큼, 여러분들도 고통분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장이 발전하고, 나아가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좋은 균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체신노동조합(遞信勞動組合)과는 지금까지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힘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취임이 정보통신부가 일등부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모으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 3. 5.

정보통신부장관 배순훈

장·차관 주요 프로필



□ 장관

배순훈 (裴洵勳)



□ 차관

정홍식 (鄭弘植)

○ 생년월일 : 1943. 4. 30

○ 학력

1961~196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1966~1969 미국 M.I.T 공과대학졸업 공학
석사(1968), 공학박사(1970)

○ 경력

1972~1976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1982~1983 대우전자(주) 사장

1985~1990 대우기전공업(주) 사장

1989~1990 대우조선공업(주) 사장(겸직)

1995~1997 대우전자(주) 회장

1997. 12 대우 프랑스본사 사장

○ 생년월일 : 1945. 8. 29

○ 학력

1972. 9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6. 8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졸업
(경제석사)

○ 경력

1977. 9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서기관)

1987. 11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
산업담당, 부이사관)

1991. 1 체신부 정보통신국장(이사관)

1994. 1 체신부전산관리소장

1995. 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관리관)